

마태복음 24:45 – 24:51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않은 종

45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 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46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47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48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49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50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51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 24 장 45 절부터 25 장 30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항상 그때를 대비하여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비유입니다.
- 45 절부터 51 절의 비유에서 준비된 종은 신실한 종, 준비되지 않은 종은 신실하지 않은 종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종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모스' 라고 표현되는, 집안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청지기 입니다. 신실한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잘 수행하고, 신실하지 않은 종은 49 절처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종입니다. 주인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돌아와서, 이종을 '위선자' (51 절)로 취급하여 벌을 내리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23 장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를 말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벌은 영원한 지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 25 장 1 절부터 13 절까지 있는 열 처녀의 비유를 같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비유한 구절들이 있는데 (이사야 54:4-6, 62:4-5)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는, 신랑이 부모의 집을 떠나 친구들과 같이 신부의 집에 와서 결혼식을 하고 그 뒤에 모든 하객들이 다시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서 축하연을 하는데 보통 밤에 한다고 합니다.
-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등불은 일반적인, 집안에서 사용하는 작은 등불이 아니라 기름에 절인 심지가 있는 횃불같은 것인데, 기름 통을 따로 준비해 두었다가 기름을 보충해 주면 몇시간 가량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비유에서 처녀들이 기다리다가 잠이 든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결혼식과 피로연이 밤에 진행이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밝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 두었는가 라는 부분에서 지혜로운 처녀와 그렇지 않은 처녀가 구분이 됩니다.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가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자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12 절에서 신랑이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을 기억하면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 1:5, 디모데후서 2:19) 즉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25 장 14 절에서 30 절까지 달란트의 비유를 같이 읽어 보세요
- 이 비유에서 주인은 각 종에게 능력에 따라 다섯, 둘, 한 달란트를 줍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곧 가서' 장사를 하여 돈을 벌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번 돈에 대하여 똑 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즉 번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겨진 일에 대해 얼마나 신실하였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두가지 잘못이 보입니다. 하나는 그가 주인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맡겨진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지혜롭고 성실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30 절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 25 장 31 절에서 46 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 이제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면 심판과 상을 받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오십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들, 유대인과 이방민족들을 모두 심판하십니다.
- 보통 오른편은 영예로운 자리를 나타내고 왼편은 불명예스러운 자리인데, 이 예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염소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구약에서 염소는 대부분 희생/속죄 제사의 제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양은 선한 것을, 염소는 악한 것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 상급을 받을 사람과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구별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판단 기준은 40, 45 절에 나오는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 입니다. 그리고 상급과 심판은 '창세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는 것'과 '악마와 그 즐거움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는 것' 입니다.
-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5 절 -36 절) 내용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40 절에서 '내 형제자매 가운데'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중에서,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예화에서 양과 염소로 분류된 사람 모두가 자신들이 행한/행하지 않은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의식적으로 행한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그렇지 않은 삶의 자연스런 결과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